

라후어(Lahu)의 언어학적 연구

- 형태론 및 통사론적 분석 -

이 현 복
(서울대학교 음성·언어학)

1. 머리말

이 글은 “라후(Lahu)”어의 형태론과 통사론에 관한 언어학적인 분석과 기술을 목표로 한다. 필자는 태국 북부 치앙라이(Chiang Rai) 지역의 산중에 사는 라후족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2.2. 참조)를 통하여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라후어를 기술한다. 문자도 없고 역사도 불분명하며 라후어에 관한 기존의 연구도 희귀하므로 이 언어에 관한 연구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은 라후어의 형태론과 통사론에 관한 기본적인 개괄적인 연구로 시도된 것이다. 더욱 정밀하고 상세한 연구는 앞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라후족과 라후어가 우리 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언어인 만큼 먼저 이에 대한 배경을 약술하고 이어서 라후어의 음성과 음운에 관한 간략한 기술 및 표기법을 제시한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기로 한다.

2. 라후어의 개관

라후어는 태국 북부와 미얀마의 북동부, 그리고 라오스의 서북부 및 중국 운남성의 남부 지역의 산중에 흩어져서 여기 저기 부락을 이루고 사는 라후

라는 산족의 언어이다. 라후족은 화전 중심의 농경으로 어렵게 살아가며 과거에는 아편을 재배하여 소득을 피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국적도 문자도 없이 대체로 미개한 삶을 이어오고 있는 그 지역 10여개 산족 중의 하나이다. 라후족은 모두 6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중에서 중국에 36만, 미얀마에 20만, 태국에 6만, 라오스에 2천명 정도가 살고 있다. 라후족은 오래 전부터 중국과 미얀마에 정착하였고 태국과 라오스에 사는 라후족은 백여년 전부터 미얀마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라후족은 언어, 민속, 생활 양식 등에서 인근의 태국인이나 라오스인, 미얀마인, 중국인 등과는 다른 고유의 특성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라후어는 “싸이노-티베트(Sino-Tibetan)” 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싸이노-티베트”라는 거대한 어족의 한 분파인 “티베트-버마(Tibeto-Burman)”계에서 다시 갈라진 “롤로-버마(Lolo-Burmese)” 분파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싸이노 티벳어족 → 티벳-버마어계 → 롤로-버마어계 → 라후어의 계통도를 보인다.

라후어는 다시 “라후 나”(Lahu Na: 검은 라후)와 “라후 시”(Lahu Shi: 노란 라후), “라후 니”(Lahu Ni: 빨간 라후), “라후 셀레”(Lahu Shehleh)로 나뉘어 방언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이중에서 라후 나(Lahu Na)가 대표적인 공통어의 구실을 한다. 라후나를 공통어라고 하는 것은 라후나가 라후어의 여러 방언을 대표하는 공용어의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라후나”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2.1. 라후어의 사용 실태

비록 글자가 없는 말이나 라후어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라후인들이 모두 사용하는 모국어이다. 그러나 태국 영토안에 살기 때문에 라후인들은 대체로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생활의 방편으로 태국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국인이나 그 밖의 외부인과의 대화는 주로 태국어로 소통된다. 그리고 극소수이기는 하나 일부 기독교로 개종하여 학교 교육을 받은 라후인들은 영어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필자가 사용한 라후어 제보

자 중에도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2.2. 라후어와 한국어

라후어는 한국인과 한국어학계에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것은 라후어가 음성적, 문법적인 구조와 특성에 있어서 한국어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라후어는 음성과 음운의 체계가 한국어와 유사할 뿐 아니라 문장 안의 어순도 같고 그 밖에도 통사론적 특성에 있어서 우리말과 유사한 면이 상당히 많다(제3장 라후어의 음성 및 음운 특성 및 제4장 라후어의 품사 참조).

한편 한국어는 그 동안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렇다면 어족적으로 전혀 계통을 달리하는 라후어가 어찌하여 한국어와 구조적인 유사성을 지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라후어는 유형적으로 한국어와 유사성을 지니는 것뿐인가?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어떤 특별한 계기나 의미있는 교섭이 있어서 우리말과 유사한 면을 지니게 된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하여는 먼저 라후어 자체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라후어에 대한 정밀한 연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구조적 특성을 비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 아래 필자는 라후어에 관한 언어학적 분석과 기술을 시도한 것이다.

2.3. 라후어의 현지 조사

필자가 라후어를 현지 조사하기 위하여 택한 곳은 태국 북동부의 치앙라이(Chiang Rai)시에서 2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산속에 있는 마을이었다. 조사는 1995~1997에 걸쳐서 주로 12월과 1월 사이에 세 차례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라후어의 현지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나데 (여) 17 세(미혼)
2. 나시 (여) 16 세(미혼)
3. 짜토 (남) 35 세(기혼)
4. 짜소 (남) 24 세(미혼)

이들 중에 나테와 짜토가 같은 마을의 주민이고 나시와 짜소가 이웃마을에 살고 있었다. 1995년 12월 최초의 방문에서 제보자로 활용되었던 이들 중에서 나테와 나시는 그후 모두 출가하여 외지로 떠나가 없었다. 따라서 그 후의 조사는 주로 남성 제보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로 태국어로 질문을 하여 라후어의 자료를 얻어 내고 이를 전사하고 분석하면서 필요한 어휘적, 문법적 정보를 추출하고 대조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3. 라후어의 음성학 및 음운론적 특성

라후어의 형태와 통사구조를 분석 기술하기에 앞서서 음성과 음운의 구조와 특성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이는 라후어의 형태와 통사 구조를 기술하는데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예문의 전사에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3.1. 라후어의 음절 구조

라후어의 음성과 음운 구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단위는 음절이다. 라후어의 음절 구조는 대단히 단순하여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다.

$$\text{음절} \rightarrow (C) + V + T = \langle (\text{자음}) + \text{모음} + \text{성조} \rangle$$

위에서 (C)는 초성의 자음이 수의적임을 나타내고 V는 음절의 핵을 이루는 모음을 나타내며 T는 성조를 나타낸다. 따라서 모음과 성조는 음절의 필수요소임을 알 수 있다. 위의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라후어는 자음군이 없다. 음절의 핵인 V위치에는 단순모음이나 이중모음이 나타난다. 그리고 T의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성조는 모두 7개이다.

3.2. 라후어의 자음 음소

라후어의 자음 체계는 다음과 같이 24개의 자음으로 구성된다.

이 24개의 자음을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으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괄호 안의 기호는 편의상 앞으로 예문 제시에 사용할 표기체계이다).

	양 순	치 조	경구개	연구개	목젖	성 분
무성무기파열	p	t	c	k	q	
무성유기파열	ph	th	ch	kh	qh	
유성파열	b	d	j	g		
비음	m	n		ŋ(ng)		
무성마찰	f	s				h
유성마찰	v		y	g'		
설측음		l				

위의 표에서 경구개자음 /c, ch, j/는 파찰음이다. 이들 24개 자음은 모두 음절의 첫소리로 날 수 있다. 2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라후어의 음소 체계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무성 파열음의 조음 위치가 네 군데에 걸쳐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일반적으로 여러 언어에서 쓰이는 양순, 치조, 연구개의 3개 위치 이외에 목젖 위치가 추가로 나타난다. 그러나 유성 파열음과 비음 및 마찰음의 경우에는 목젖소리가 없음이 특이하다.

3.3. 라후어와 한국어의 자음 음소 목록 비교

라후어와 한국어의 자음 음소 목록을 대비시키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한국어의 음소는 대응하는 라후말의 기호 뒤에 사선을 긋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사선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에 해당 음소가 없음을 뜻한다.

〈라후어과 한국어의 닿소리 음소 대조표〉

p / ㅍ	t / ㅌ	c / ㅊ	k / ㅋ	q
ph / ㅍ	th / ㅌ	ch / ㅊ	kh / ㅋ	qh
b / ㅂ	d / ㄸ	j / ㅈ	g / ㄱ	
m / ㅁ	n / ㄴ		ŋ / ㅇ	
f	sh / ㅅ			h / ㅎ
v		y(j)	g'	
	l / ㄹ			

위의 라후어와 한국어의 닿소리 음소 대조표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어는 음소가 19개인데 비해서 라후어는 이보다 5개가 많은 24개이다. 그리고 라후어는 우리말에 없는 목젓소리 /q, qh/와 연구개 마찰음 /g'/ 및 순치음 /f, v/의 다섯 개 음소를 추가로 가지고 있다. 이들 다섯 개의 음소는 한국어에 전혀 없는 소리들이다. 또한 설측음 /l/이 항상 설측음으로만 나는 것도 우리말과는 다른 특색이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라후어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파열음의 삼중적인 음운대립을 지닌다는 사실이다. 즉, /b, p, ph/, /d, t, th/, /g, k, kh/. 다만 한국어와 달리 /b, d, g/는 라후어에서 유성으로 실현된다.

보기) /pa(ve)/ [pa(ve)] “바꾸다”
 /pha/ [pha] “형꿘/천”
 /ba(ve)/ [ba(ve)] “밧다”

3.4. 라후어의 모음 음소

라후어의 모음은 다음의 9개 음소로 구성된다. 이 9개의 모음을 조음음성학적인 체계로 배치하면 다음과 같다(괄호안의 기호는 예문을 위한 표기이다):

	전 설	후 설	
	평 순	평 순	원 순
폐 모 음	i	u(w)	u
반폐모음	e	ʌ(eo)	o
반개모음	ɛ(eh)		ɔ(oh)
개 모 음		a	

3.5. 라후어와 한국어의 모음 음소 목록

라후어와 한국어의 홀소리 음소의 수와 그 종류를 비교하기 위하여 두 언어의 모음 음소 목록을 대비시키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도 한국어의 홀소리 음소는 대응하는 라후어의 홀소리 뒤에 괄호로 묶어 제시한다.

i(이)	u(으)	u(우)
e(에)	ʌ(어)	o(오)
ɛ(애)	a(아)	ɔ

위의 표에서 라후어는 모두 9개의 모음 음소 체계를 가지고 한국어는 8개의 음소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는 후설 원순 개모음이 없는 것이 다를 뿐 나머지는 라후어와 체계가 일치한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라후어도 후설 폐모음과 중간모음에서 평순과 원순의 대립을 보이는 것이 흥미롭다.

/u/(우) 와 /u/(으)

/o/(오) 와 /ʌ/(어)

3.6. 라후어의 성조

라후어에는 음절마다 없이는 성조가 7개가 있다. 즉 라후어는 “높내림”(high fall), “가온수평”(mid level), “낮내림”(low fall), “낮수평”(low level), “높오름”

(high rise), “높내리막힘”(high fall glottalized), “낮내리막힘”(low fall glottalized)의 7성조로 구성된다.

1) 높내림	/;a/	;ca “떡다”
2) 가은 수평	/a/(무표)	ca “찾다”
3) 낮내림	/,a/	,ca shi_ “쌀알”
4) 낮수평	/_a/	_ca “떡이다”
5) 높오름	/?a/	?ca “있다/참여하다”
6) 높내리 막힘	/:a/	:ca “작은 조각”
7) 낮내리 막힘	/.a/	.ca “떨다”

위에서 ca라는 하나의 음절이 7개의 성조와 차례로 결합함에 따라서 일곱 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낱말을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높내림”은 목소리가 높은 데서 낮게 떨어지는 성조이고, “가은 수평”은 목소리가 보통의 중간 높이로 평평하게 지속하는 성조이다. 또 “낮내림”은 중간 정도의 목소리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떨어지는 성조이고 “낮수평”은 낮고 수평으로 지속하는 성조이며, “높오름”은 중간 목소리 높이에서 더 높은 목소리로 올라가는 성조이다. “높내리 막힘”의 성조는 높은데서 낮게 떨어지되 성문과 열음이 뒤따라서 목이 막히듯이 목소리가 갑자기 중단되는 성조이고, “낮내리 막힘”은 끝부분에서 목소리가 막히듯 갑자기 중단되는 현상은 위와 같으나 시작하는 목소리 높이가 중간 정도인 점이 다르다.

성조의 표시는 흔히 모음의 위에 몇 가지 부호를 덧붙여서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필자는 두 가지 이유로 새로운 성조 표시법을 도입하였다. 첫째로 성조표시를 모음 위에 하면 이를 보고 발음할 때에 성조를 올바르게 확인하고 발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정확한 성조를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모음 앞에 성조 표시를 하여 여유를 가지고 성조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로 성조 기호는 생소한 기호보다는 눈에 익은 표시가 유리하기 때문에 구두점을 도입하였다. 특히, /?/ 표시는

의문문의 끝이 오름을 나타내고 /./나 /,/ 등은 목소리가 낮아짐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조 형태를 기억해 두는데도 유리할 것이다.

위의 표기체계는 앞으로 라후어의 기술에 그대로 활용된다. 다만 간결한 표기를 위하여 형태론 및 통사론적 기술에 제시되는 예문에는 성조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4. 라후어의 형태론과 품사 분류

여기서는 라후어의 형태소와 낱말의 형태와 특성을 다룬다. 형태소와 낱말은 바로 라후어 형태론의 문제일 뿐 아니라 통사 구조의 주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라후어에서 형태소와 낱말의 구별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라후어는 형태적인 변화가 거의 없고 대부분 형태소와 낱말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후어의 품사 분류는 주로 통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즉 통사적 구조 안에서의 성분간의 전후 관계와 선택, 제약 등이 주요 품사 분류 기준으로 활용된다. 라후어에는 다음과 같은 품사의 설정이 필요하다:

- | | |
|---------------------------|---------------------------|
| 1) 명 사(Noun/N), | 2) 동사 (Verb), |
| 3) 후치사(Particle/Pcl), | 4) 분류사(Classifier/Clf), |
| 5) 부 사(Adverb/Adv), | 6) 접속사(Conjunction/Conj), |
| 7) 감탄사(Interjection/Intj) | |

이 중에서도 형태론과 통사론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는 명사와 동사이다. 괄호 안에 있는 사선 뒤의 영문 글자는 해당 품사를 나타내는 약자이다.

4.1. 라후어의 명사(Noun/N)

라후어의 명사는 <수사 + 분류사> 앞에 자유롭게 쓰이는 낱말을 말한다.

수사는 명사의 한 부류로 처리한다. 라후어 명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라후어의 명사는 보통 한 음절로 되어 있다.
/_noh/ “박으로 만든 악기”, /:kha/ “동네”, /:suh/ “숲”
- 2) 1음절 명사가 결합하여 여러 음절로 구성된 명사를 파생시킨다.
/:kha :ya/ “동네사람”, /:su ,ceh/ “나무”
- 3) 다음절 명사어는 구성 성분으로 분석될 수 있다.
/choh ;moh ;khoh/ “격언” → (사람 + 늙은 + 말)
- 4) 대구(couplet)로 결합된 복합어가 많다:
/:ca ,tu ,doh ,tu/ “먹을 것과 마실 것”
(:ca “먹다” + ,tu “명사화 형태소” + ,doh “마시다”)

4.2. 라후어의 동사(Verb/V)

라후어의 동사는 부정부사 /ma/ 뒤에 올 수 있는 낱말로 정의된다. 동사는 라후어에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한다. 문장 구성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라후어에서는 동사가 다른 동사나 조동사와 자유롭게 결합하여 동사구를 구성한다. 라후어는 이점에서 한국어와 상당히 유사하다. 라후어 동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1) 라후의 동사 역시 보통 1음절어이며 후속하는 후치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나타난다. /,moh (ve)/ “보다”
- 2) 두 개의 동사가 직접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ca ,ca ve/ “찌서 먹다” (?ca “찌다” + ca “먹다”)
- 3) 두 개의 동사가 연결되어 대구를 이루는 경우도 적지 않다.
/:the ve ;coh ve/ “정직한” (:the “똑바르다” + ;coh “올바르다”)
- 4) 같은 동사가 중복되어 강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ma ve/ “많다” → /:ma ;ma (.coh) ve/ “아주 많다”

(;ma“많다” + ;ma “많다”)

5) 선행동사 + 본동사

/:phoh ;hen ve/ “같이 공부하다” (phoh “같이하다” + hen “공부하다”)

/?ca ;hen ve/ “계속 공부하다” (?ca“계속하다” + ;hen “공부하다”).

6) 본동사 + 후행동사

/phoh ,la ve/ “날아 오다” (phoh “날다” + ,la “오다”)

/phoh qai ve/ “날아 가다” (phoh“날다” + qai “가다”)

라후어의 동사는 형태/통사론적으로 핵심적인 기능을 하므로 뒤에 다시 재론하기로 한다(5장 동사구 참조).

4.3. 후치사(Particles/Pcl)

한국어에서와 같이 후치사(또는 조사)를 명사나 동사에 더하여 다양한 문법적, 의미적 기능을 나타낸다. 명사 뒤에 붙은 후치사를 “명사적 후치사”(Pn)와 동사뒤에 붙는 후치사를 “동사적 후치사”(Pv)라고 한다. 그 밖에 명사나 동사 또는 다른 후치사 뒤에 자유롭게 나타나는 후치사를 “자유 후치사”(Pu)라 한다.

4.3.1. 명사의 후치사로

명사의 후치사는 명사의 뒤에 오는 형태로서 “호격 후치사”, “여격 후치사”, “대격 후치사”, “속격 후치사”, “방향격 후치사” 등이 있다.

a) 호격(Vocative): /a/ “아/야”.

/,Ca ?Shoh ,a(호격)/ “짜소 야!”

b) 여격(Dative): /tha/ “에(게)”

/,Nga yoh .tha(여격) ; pi ve/ “나(는) 그에게 주었다”

c) 대격(Accusative): /tha/ “을/를”

,Noh _oh .tha(대격) ;ca ve “너 밥 을 먹어요”

위에서 후치사 /tha/는 여격 및 대격 후치사로 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라후어에서 대격 후치사는 의무적이 아니고 수의적으로 쓰인다. 즉 대격 tha는 항상 쓰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 문장 안에 대격과 여격이 같이 나타날 때에는 여격 뒤에 /tha/가 온다.

보기) /nga tha(대격표시) doh ve/ (nga “나” + doh “때리다”)

“나를 때린다.”

/li chi(대격 무표시) nga tha(여격 표시) pi ve/

“그 책(을) 나에게(여격 표시) 준다.”

(li chi “그책” + nga “나” + pi “준다”)

d) 속격(Genitive) : /ve/ “의”.

속격 /ve/는 라후어에서 명사구를 구성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중요한 후치사이다. ve는 Np(소유자)와 Nh(피소유물) 사이에 위치하여 하나의 명사구를 구성한다. 따라서 속격 명사구는 Np + ve + Nh로 나타낼 수 있다.

보기) ;Noh ve(속격) ,yeh

“너 의 집”

,Ca-;loh ve ?a-tho

“짚로 의 칼”

이같은 속격의 명사구에서 ve 다음에 오는 Nh는 전체 명사구의 핵으로 기능한다. 이는 바로 한국어의 “너의 집”과 같은 명사구에서 볼 수 있는 /의/의 기능과 같다.

e) 방향격(Locative) : /lo/ “으로/에서”

/,Noh ve ,yeh lo(으로)/

“너 의 집 으로”

/ha-qo lo mw cheh ve(에서)/

“굴속에(서) 앉아 있다.”

위의 보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으로(동작)”와 “에서(정지상태)”는 후행하는 동사의 의미에 따라 결정된다.

4.3.2. 동사의 후치사로(Pv)

동사의 후치사는 동사 뒤에 놓이며 글월의 “법”(mood), “시제”(tense) 등을 나타낸다.

a) 법(Mood) : 서술 / 의문 / 명령 / 청유

/,Noh _oh ;ca ve(서술문) / “너 밥 먹어.”

/,Noh _oh ;ca ;la(의문문) / “너 밥 먹어?”

/_oh ;ca -(명령문) / “밥 먹어라!”

/_oh ;ca (a) ,vw(청유문) / “(우리)밥 먹자!”

위에서 라후어의 명령문은 문장의 끝에 오는 동사의 끝 모음에 성문과열음(편의상 /?/로 표기한다. 이 기호가 성조표시로 쓰일 때는 해당음절 앞에 놓인다)을 더하여 나타낸다.

b) 시제(Tense) : /tu/ “미래”

/,Nga _oh ;ca ,tu(미래) ve/ “나 밥 먹겠어”.

4.4. 분류사(classifier/Clf)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라후어는 수사 다음에 분류사를 요하며 수사 앞에는 명사가 온다. 그리고 분류사는 선행하는 명사에 따라 선택된다.

보기) g'a(사람), ba(납작한 사물), kheh(동물), ma(일반적).

/choh ;te ;g'a(Clif) /

“사람 한 명”

/;Nu ;nyi kheh(Clif) /

“소 두 마리”

/;Nu ;nyi ,ma(Clif) /

“소 두 개/마리”

위에서 /,ma/는 일반적인 분류사로서 동물을 나타내는 분류사 /kheh/를 대신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분류사를 사용하여 구성되는 라후어의 명사구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명사구는 그 구조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4.5. 라후어의 부사(Adverb/Adv)

라후어에서 부사는 동사나 동사구에 선행하는 낱말이며 뒤따르는 동사나 동사구를 수식한다.

a) /ma/ “못/안”(부정)

/,Noh _oh ;ma(Adv) ;ca/ “너 밥 안 먹어.”

b) /:ha :ha/ “빨리”

/:ha :ha(Adv) kai ve/ “빨리 간다.”

c) /a ?yeh/ “천천히/느리게/부드럽게”

/a ?yeh(Adv) ;kho ve/ “느리게 말하다.”

4.6. 라후어의 접속사(Conjunction/Conj)

접속사는 절의 첫 자리에 온다. 접속사의 보기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leh/ “그리고”, /qhe ko/ “그래서”, /qhe ka/ “그러나”

보기) leh(Conj), ka-loh chi ha-leh ja le.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단히 흥미롭다”

4.7. 감탄사(Interjection/Intj)

감탄사는 독립적인 성분으로 행동하며, 구 사이에 자유로이 삽입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감탄사의 보기는 다음과 같다:

/aa/ “아!(경고/만족),” /oo/ “오!(놀람),” /aloo/ “저런!”

보기) aa -- chi qhe ta te

“아, 그렇게 하지 마라.”

5. 라후어의 통사적 구조

라후어의 통사적 구조를 기술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문장”(sentence), “구”(phrase), “절”(clause). 이들은 라후어의 통사 구조를 이루는 핵심적인 단위들이다. 이 중에서 “문장”을 최상위 단위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구”와 “절”을 설정한다. 이들 단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들을 차례로 기술한다.

- 1) 문장(Sentence) : 문장은 앞뒤에 긴 휴지가 있는 발화이며 최소한 하나의 “동사구”(VP)를 포함한다.

#;ca ve# (먹는다)

VP

#_aw ;ca ve # (밥 먹는다)

NP VP

#,Nga _aw ;ca ve # (나 밥 먹는다.)

NP NP VP

- 2) 구(Phrase) : 구는 하나의 문법적 단위로 기능하는 형태소의 연결체로서 그 안에 휴지가 들어갈 수 없다. 그 핵은 명사적일 수도 있고 동사적일

수도 있다. 명사적인 핵을 “명사구”(NP)라고 하고 동사적인 핵을 “동사구”(VP)라고 한다.

- 3) 절(Clause) : 절은 최소한 하나의 동사구로 구성되며 하나 이상의 명사구가 선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절은 그 뒤에 하나 이상의 후치사를 거느릴 수 있다.

5.1. 문장의 유형

문장은 완전 문장과 불완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 문장은 동사구로 끝나는 문장이며 불완전 문장은 동사구가 없이 명사구로 끝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주로 완전 문장의 구조만을 기술한다.

문장은 또한 그 통사 구조에 따라 단문(simple sentence), 중문(compound sentence) 및 복문(complex sentence)으로 구분된다.

5.1.1. 단 문

단문은 비종결 동사구가 없이 단 하나의 종결 동사구(VPf)를 포함하는 문장을 말한다. 따라서 단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단문 → [(NPn) + VPf + (Pv)]

보기: 1) nga qai ve (nga “나” + qai “가다”)

NP VPf Pv

“나는 간다.”

2) yo nga tha kho te si nga la tu.

NP1 NP2 NP3 VPf Pv

“그가(NP1) 나에게(NP2) 핑이를(NP3) 빌려줄 것이다(VPf).”

(yo “그 사람” + nga tha “나에게” + kho te si “핑이” +

nga la “빌려주다” + tu “미래시제”).

5.1.2. 중 문

중문은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종속(non-embedded) 비종결 구(non-final phrase)를 포함하는 문장을 뜻한다. 중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중문 → [(NPn) + VPnf + (P)]n + [(NPn) + VPf + (Pv)]

보기) o / ca a \ leh // yw ga \ve tho // ni ma /ha ja\ eh // yw ma ga.

NP VPnf1 P VPnf2 Pv NP VPnf3 P VPf

“그는 밥을 먹고// 자고 싶었으나// 의기가 소침하여// 잘 수가 없었다”

5.1.3. 복 문

복문은 종속구를 포함하는 문장을 말한다. 복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복문 → [(NPn) + VPnf + (P)]n + VPf + (P).]

보기: 1) (noh a-tha / meo pw \ ve) tha nga / ma yo

(NP1 NP2 VP) Pn NP VPf

NP

“네가(NP1) 악기를(NP2) 연주할 수있다(VP)는 것을(NP)을 나는(NP) 믿지 않는다(VPf).”

2) (atha meo pw / ve) ya neh / la o / la

NP VP Nh VPf Pv

NP

“(피리를 불 줄 아는) 청년이 벌써 왔느냐?”

위에서 1)은 명사적인 종속절을 포함하는 복합문이고 2)는 형용사적인 종속절을 포함하는 복합문을 예시한다.

6. 라후어의 동사구(Verb Phrase)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라후어의 통사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사구이다. 동사구는 스스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 있는 문장의 핵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동사구의 구조를 상술한다.

6.1. 동사구의 구조

동사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Pf → (AE) + Vnuc + (Pv)

즉, 종결 동사구는 임의적인 부사 표현(Adverbial Expression/AE)과 필수적인 동사 핵으로 구성되며 동사 다음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후치사가 올 수 있다.

보기) te-chi(AE) ma qo(Vnuc) la(P)

“전혀 말하지 않았다.”

6.2. 동사 핵의 유형

라후어의 동사 핵은 “단순형”(Vsimple)과 “연쇄형”(Vconcatenated)으로 나뉜다. 단순형은 하나의 동사로 구성되는 동사핵이며 연쇄형은 동사 핵의 앞뒤에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동사가 연결되어 구성된다.

6.2.1. 단순형 동사핵

단순형 동사핵은 단지 하나의 동사로 이루어진 동사 핵을 뜻한다. 단순형 동사핵으로는 모든 자립형의 동사가 있으며, 행동동사와 형용동사는 물론 복합동사도 모두 단순형 동사 핵으로 쓰일 수 있다.

보기: 1) 행동동사 /ca/ “먹다”, /qai/ “가다”

2) 형용동사 /da/ “좋다”, /qha/ “쓰다(맛이)”

3) 복합동사 /bo-peh/ “쏘아 죽이다”, /toh-neh/ “잘게 찌르다”

6.2.2. 연쇄형 동사핵

라후어의 동사핵은 동사를 하나 이상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라후어는 단순히 동사를 자유로이 연결함으로써 대단히 복잡한 동사 핵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하나 이상의 동사로 이루어진 동사 핵을 연쇄형이라고 한다.

동사의 연쇄에서 하나는 반드시 동사 핵의 기능을 하며 다른 동사들은 핵 동사에 종속된다. 이들 종속 동사들은 핵 동사의 좌측이나 우측에 오기도 하고 핵을 중심으로 좌우에 배열되기도 한다. 때로는 종속동사의 수가 상당히 많은 수에 이르기도 한다. 다음 보기를 통하여 동사의 연쇄를 예시한다.

1) nga-hw / ga qo chi to pi ve

1 2 3 4 5 6 7

“우리는 꼭 (그 것을) 다시 들어 내 주어야 하였다.”

1 2 3 4 5 6 7

2) nga-hw / ta yu qai cw co ve la.

1 2 3 4 5 6 7 8

“우리가 (그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기 시작하게 해야 할까요?”

1 3 4 2 5 7 8

3) nga / ga ta te qai a-ni ve yo

1 2 3 4 5 6 7 8

“나는 (그 것을) 계속 해 나가는 시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1 4 5 6 3 2 7 8

위의 문장 1에서 핵동사인 chi “들다” 앞에는 ga “해야한다”, qo “반복하다”의 두 동사가 선행하며, 그 뒤에는 to “나오다”, pi “주다”라는 다른 두 동사가 온다.

문장 2에서는 핵동사 yu “가지다” 앞에 ta “시작하다”가 오며 핵동사 다음

에는 qai “가다”, ci “보내다/(사역형)”, coh “옳다”라는 세 개의 동사가 후행한다.

문장 3에서는 핵 동사 te “하다” 앞에 ga “해야 한다”, ta “시작하다”의 두 동사가 선행하고 그 다음에 qai “가다”와 ni “보다/시도하다”라는 두 개의 동사가 후행한다.

위 보기에서 나온 비 핵동사는 모두 자립적인 완전한 동사이며, 비록 의미상의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으나, 모두 완전한 동사 핵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자유롭게 결합하여 쓰일 수 있는 동사이다.

6.3. 동사의 특성과 하위 분류

라후어에서 부정 부사 /ma/ “아니(하)다”의 바로 뒤에 올 수 있는 낱말은 동사이다. 또한 동사 앞에는 부사가 오고 뒤에는 동사 후치사가 올 수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동사는 “행동동사”(Vact)와 “형용동사”(Vadj)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통사 및 의미론적인 기준에 따른다. 행동동사는 수적으로도 형용동사에 앞서며 라후어 동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라후어의 형용동사는 한국어의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상태와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기) da “좋다, 이쁘다”, mo “길다”, i “작다”, qha “쓰다”, chu “똥똥하다”

6.3.1. 행동동사와 형용동사의 통사적 기준

행동동사와 형용동사를 구별하는 통사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동사형 후치사와의 결합 제약 : 행동동사는 모든 동사형 후치사와 자유롭게 결합하나 형용동사는 결합에 제약이 많다. 가령, 형용동사는 다음과 같은 동사형 후치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ta “영원한 상태”, da “상호성”, veo “운반동작”, lo/vw “명령”.
- 2) 연결 핵안에서의 행위 : 형용동사는 행동동사보다 다른 동사와의 연결 관계가 제한적이다.
- 3) 반복과 강화 안에서의 행위: 행동동사와 형용동사는 모두 반복이 가능하

나 통사 및 의미적 속성은 다르다. 특히 행동동사는 반복 현상을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형용동사는 반복 현상을 자유롭게 보이며 강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한 형용동사는 대체로 부사적 표현으로 기능한다. 보기) da-da te ve “아주 잘 한다”(da “좋은”),

chu-chu ve ta ka pa “대단히 똥똥한 상인”(chu “똥똥한”)

6.4. 라후어 동사의 태

라후어 동사에는 타동사와 자동사 또는 능동태와 피동태의 구별 같은 것이 다른 언어와 같이 분명하지 않다. 물론 많은 행동 동사는 목적어가 선행하지만 그러한 목적어가 모두 목적격 후치사인 “tha”를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사들은 목적격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목적격을 필요로 하는 타동과 그렇지 않은 자동을 통사적인 근거로 구분할 필요는 있다.

보기) 타동사 : doh “때리다”, ta “오르다”, ba “던지다”.

koh “두려워하다”, ju “찌르다”

자동사 : cheh “살다”, pheh “있다”, hoh “올다”,

po “날다”, ha “밤을 지내다”

6.5. 라후어의 복합동사

라후어 동사는 행동동사이건 형용동사이건 단순한 나열로 복합 동사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같이 구성되는 복합동사의 통사적 기능은 모든 면에서 동사의 핵과 일치한다. 복합 동사는 구성 성분의 자립도에 따라서 다음의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1) 자립동사 + 자립동사 (Vfr + Vfr)

이는 두 자립 동사로 구성되는 복합동사이다. 즉 복합을 이루는 동사는 각 독립적으로 동사핵으로 쓰일 수 있는 동사이다.

보기) nu “냄새나다” + qha “쓰다” → nu-qha “냄새나고 쓰다”,
pkeh “제한하다” + chw “묶다” → pkeh-chw “묶어버리다”
chi “올리다” + mu “높다” → chi-mu “칭찬하다”

2) 자립동사 + 의존동사(Vfr + Bv)

이는 첫번째 동사가 자립동사, 두 번째가 의존 동사 형태소로 구성되었음을 뜻한다.

보기) toh “자르다” + neh “작다” → toh - neh “잘게 썰다”
doh “때리다” + peh “죽이다” → doh - peh “때려죽이다”

3) 의존동사 + 의존동사(Bv + Bv)

이는 두 요소가 모두 의존 동사 형태소임을 말한다. 이들은 어느 것도 홀로 동사 핵의 구실을 할 수 없으나 복합동사로서는 핵의 기능을 갖는다.

보기) ha - leh “기쁘다”

여기서 ha 형태소는 ha-qa와 같은 유사 구조에서도 나타나 ha-leh=ha-qa “행복하게/즐겁게”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7. 맺음 말

이 논문은 태국 북부 고산지대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라후족의 언어를 현지 조사를 통하여 언어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라후어의 형태론 및 통사론적인 구조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라후어는 낱말 등이 형태적인 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언어이므로 주로 몇 가지 통사적인 기준에 따라 품사 분류를 해야 한다. 라후어는 동사중심의 언어이다. 따라서 품사중에서도 동사가 가장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도 동사와 동사구의 통사적 기능을 기술하는데 역점을 두고 라후어의 기본적인 통사 구조를 기술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라후어는 통사적으로 한국어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문장의 어순은 물론이고 동사구의 구조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사구의 구조 또한 유사하며 다양한 후치사의 활용 또한 두 언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계통론적으로 무관한 두 언어가 구조적인 유사성을 공유하는 것이 단순히 우발적이고 유형론적인 공통성에 불과한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라후어에 관한 연구를 깊이하는 가운데 계속 추구해야 할 숙제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 김병호, 치앙마이, 서울, 1992.
- 이현복, “라후어의 언어학적 연구 - 음성학 및 음운론적 분석-”, (1994년도 지역종합연구 연구과제: 1995).
- 이현복, “라후어의 언어학적 연구,” 남방문화 제1호, 남방문화연구회, 서울, 1995.
- Andre and Louis Boucaud, Peoples of the Golden Triangle, 1986, London.
- David Bradley, Thai Hill Tribes Phrasebooks. Lonely Planet.
- Paul Louis, Lahu - English - Thai Dictionary. Thailand Lahu, Baptist Convention, Chiang Mai. Publications, Inc. 1991.
- Hyun Bok Lee, Korean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James Matisoff, The Grammar of Lahu,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Linguistics V olume 75. 1982.

A Linguistic Study of Lahu
- Morphological and Syntactic Analysis -

Hyun-Bok Lee

Professor of Phonetics and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describe the morphological and syntactic structure of the Lahu language spoken in Chiang Rai area, Thailand. Lahu is one of the hill tribe languages spoken in Thailand, Myanmar, China and Laos, and has been classified as belonging to the Lolo-Burmese branch of the Sino-Tibetan language family. Four Lahu speakers, two men and two women, speaking black Lahu, served as informants for this study in a series of field works conducted by the author in 1995-97.

It was found necessary to set up seven parts of speech in Lahu, i.e. Noun, Verb, Particle, Classifier, Adverb, Conjunction and Interjection, on the basis of the syntactic function of words and morphemes. An Nominal and Verbal phrases and clauses are also found to operate as important syntactic units in the Lahu sentences, and three different types of sentences are distinguished on the basis of the syntactic complexity of the sentence structure, i.e., Simple, Compound and Complex.

Finally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Lahu and Korean are strikingly similar not only in sentence structure but also in phonetic and phonological systems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taken to belong to two different language families.

key words: Lahu, Lolo-Burmese, morphology, syntax, Thailand, hill tribe